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음식점 밤샘영업
노점 확성기
에어컨 실외기

“악취·소음에 창문도 못연다”

패이른 무더위 ‘짜증 민원’ 증가... 제도적 대책 필요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다. 7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0.4도를 기록하는 등 초여름 날씨가 나올 예정이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밤샘 영업하는 식당의 소음·악취는 물론,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공해로 고통을 겪는 ‘짜증 민원’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악취로 밤잠 설치

사원 정모(34·광주시 서구 처평동)씨는 최근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집 앞에 늘어선 음식점들 때문이다. 김씨는 “최근 음식점들이 식당 바깥에 테이블을 마구 설치하는 바람에 매캐한 연기와 냄새로 더위도 참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며 “고기 굽는 냄새와 밤 늦은 시간까지 소리지르는 취객들로 인해 밤이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도 불청객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남구 월산동 한 주택가에 사는 주부 이모(여·27)씨는 “겨울철이면 가급적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음식물 수거함을 두려고 다투는데 여름철만 되면 이웃집 앞으로 밀어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는 등 ‘악취족’으로 변신한다”고 토로했다.

저수지에서 풍기는 악취도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서구 풍암·운전저수지, 북구 운암·양산제 등 고여 있는 물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해 온

동이나 산책 나온 시민들은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서구 화정동에 사는 박모(37)씨는 “종암저수지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운동하기 싫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에어컨 실외기나 주택 인근 노점 화물차 확성기 소리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동구 화동에 사는 김모(45)씨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소음과 뜨거운 열 때문에 골목을 다니기 싫다”며 “또 노점 차량에 나오는 확성기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도 없고, 여름철 더위만큼 짜증이 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실에 뒤진 제도

여름철이 되면 민원이 늘어나는 것은 집안 습기를 없애기 위해 창문을 열어놓는 곳은 많은 반면, 에어컨 사음은 늘어 실외기 소음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음식물 쓰레기가 쉽게 부패되고, 악취는 물론 각종 해충의 서식지가 된다. 특히 일반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악취에 대해 법적규정이 없고, 행정당국은 소음 등을 일일이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져만 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일반 가정용 음식물쓰레기통의 손잡이는 공중화장실 변기의 9배 이상, 지하철 손잡이의 770배 이상의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됐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등 관리의 일종의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없이 각 가정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악취방지법’ 상 공장에서 나는 악취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뿐, 주택이나 상업에서 생기는 악취나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소음도 역시 옥외확성기를 바깥에 내놓는 것만으로 단속할 수 없고 소음기준치로만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음과 소음에 따른 악취를 막기 위해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구 관제지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반복된 민원은 지도·점검하고 있지만 주택가 악취·소음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책마련 시급

쓰레기를 버릴 때 뚜껑을 열고 닫으면서 세균이 옮겨갈 걱정된다든 주민들의 민원이 찾아오자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폐달식 쓰레기통으로 교체하기도 하고 악취 제거를 위해 주 1회 가장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단속조항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소음을 유발하는 ‘에어컨 실외기’는 건축물 외벽이나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음시 강동구의 경우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 또한 발코니가 없고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소규모 건축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가능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지역 도로변에 음식물이 섞인 쓰레기가 방치돼 악취를 풍기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 않는 위치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 지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미 광주 지역에는 북구 신안모아타운을 비롯, 30여곳의 ‘지렁이 아파트’가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나 동별로 공동사용장을 만들어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에게 맡기면 쓰레기량이 줄 뿐만 아니라, 환경 의식도 높아져 악취나 소음 발생도 줄어든다고 조언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박필순 사무처장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무조건 ‘하지마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제도적으로 소음이나 악취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음식물 뚜껑만 잘 닫아도 소음이나 악취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아시아·아프리카·남미 열대지역 20년내 ‘불가마 여름’ 온다

유럽·중국·북미는 60년

앞으로 20년 안에 열대권과 북반구 대부분 지역이 뜨거운 여름을 겪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이언스 데일리와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은 6일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의 ‘기후 변화’ 저널 연구 보고서를 인용, ‘앞으로 20년 안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열대 지역은 유례없이 뜨거운 여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유럽과 중국, 북미 중위도 지역은 60년 안에 극한의 여름 고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들은 “지구의 대부분 지역이 급속도로 더워져 금세기 중반경엔 가장 선선한 여름이라도 지난 50년간 가장 더웠던 여름보다 더 뜨거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진은 온난화가 앞으로 수십 년간 미칠 계절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0여 개의 기후 모델 실험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또 유례없는 고온의 여름이 이미 시작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세계 기상 관측소의 과거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극도의 고온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기

후 모델들이 역사적 기후 패턴을 매우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처럼 극적인 계절별 온도변화는 사람의 건강과 농업 생산, 경제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지난 2003년 유럽을 휩쓴 이상고온으로 4만명이 숨졌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미국 중서부의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옥수수 와 대두 같은 주요 작물의 수확량은 3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자신들의 연구가 21세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적 온건하게 잡은 모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파괴적인 고온시대가 이처럼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은 더욱 놀라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변화가 과거의 기상 관측 자료에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과 너무도 근사하게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보면 앞으로 수십년 안에 계절별 온도 급상승 현상이 고착될 것이라는 우리의 전망은 신뢰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올봄 추웠다

3~5월 0도 이하 16.4일... 1973년 이후 가장 많아

올봄 광주·전남지역에서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날이 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5월 광주·전남의 일 최저기온이 0도 아래로 떨어진 날은 16.4일로, 광주·북동·여수·완도·장흥·해남·고흥지역의 평균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많았다.

1981년부터 30년간 평균은 10.0일이었다.

광주의 일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날도 14.0일로, 광주에서

관측이 시작된 1939년 이후 가장 많았다.

기상청은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유지해 3월 꽃샘추위가 자주 나타났고 4월에도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저온현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평균기온은 11.6도로 평년보다 0.7도 낮았으며 강수량은 268.4mm로 평년(293.5mm)보다 적었다. 이 기간 황사 관측일수는 7.0일로 평년(5.1일)보다 많았으며 작년보다는 0.3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국민 64%, 음식물쓰레기 정액제보다 종량제 선호

광역시 주민 설문... 전국 144곳 지자체 내년까지 전면 도입

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배출량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일괄 부담하는 정액제’보다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전문가에 의뢰해 수행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역시 거주 주민 600명 중 64.3%가 정액제보다는 종량제가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실제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종량제 선호 비율(74.5%)이 높았다.

무상·정액제 지역의 거주자에게 비용 부담 방식이 종량제로 바뀐다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대상자의 60.4%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종량제가 배출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실제 음식물쓰레기 1t을 수거해 처리하는데 1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으나 조사 대상자의 60%는 5만원 이하로 인식하는 등 90% 이상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비용 낭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계획대로 2012년까지 전국 144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방자치단체에 종량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자체에서 지출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이 연간 8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종량제 시행 등으로 전국의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일 경우 1600억원이 상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평균 477톤으로,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5톤짜리 트럭으로 95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상당현원결 방범--(1번 or 2번)--0번
☎ 1588 - 7941

상무점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씨니 (15세)	1관 쿵푸팬더2 (전체)
2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12세)	2관 마마 (12세)
3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12세)	3관 씨니 (15세)
4관 쿵푸팬더2 (전체)	4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12세)
5관 마마 (12세)	5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6관 내부수리중	6관 씨니 (15세)
7관 내부수리중	7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8관 내부수리중	8관 레지던트 (18세)
9관 내부수리중	9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12세)
10관 내부수리중	10관 쿵푸팬더2 (전체)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밤최대주장 /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1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최고급관

2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3관 쿵푸팬더2 (전체)

4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5관 쿵푸팬더2 (전체)

6관 마마 (12세)

7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8관 씨니 (15세)/레지던트 (18세)

9관 씨니 (15세)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 - 0600

그분이 돌아오셨다!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케리비안의해적-낫선조류 (12세)
2관 쿵푸팬더2 (전체)
3관 씨니 (15세)
4관 쿵푸팬더2 (전체)
5관 레지던트 (18세)
6관 쿵푸팬더2 (전체/마마 (12세)
7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색깔있는 영화선택 •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